

코로나 팬데믹 속 일상의 회복

-아이의 운동회를 지켜보며

노유니아 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교수





코로나 팬데믹 속 일상의 회복

-아이의 운동회를 지켜보며

서울의 날씨는 찜뽕했지만 도쿄의 하늘은 화창했던 10월의 첫째 주 토요일, 아이의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다. 나는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학교 측에서 마련한 온라인(줌) 생중계를 보며 응원했다. 생중계라고는 해도 방송국처럼 전문 카메라맨이나 좋은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높은 교실의 창가에 운동장을 비추는 수준에 불과했다. 재미만 하게 보이는 아이들 중 누가 내 아이인지를 분간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이 시국’에 신나는 음악과 어린 아이들의 함성이 가득 찬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꽤 즐거운 기분이 되었다.

필자는 올해 4월부터 소속을 옮기면서 제법 길었던 일본 생활을 뒤로하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이제 나이를 좀 먹었다고 독립심이 생기고 자기주장을 하기 시작한 딸이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며 도쿄에서 회사를 다니는 아빠와 그대로 남는 것을 택했고, 우리는 이산가족이 되었다. 딸이 운동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영상통화를 통해 간간이 들었다. 각 학년마다 하나씩 맡아 선보이는 특별 공연 준비는 1학기 때부터 시작되었다. 4학년인 아이는 꽃이 달린 샷갓을 들고 추는 도호쿠 지방의 전통춤 ‘하나카사온도(花笠音頭)’를 추게 되었는데, 택배 상자 골판지를 오려 대충 만든 종이 샷갓을 한참 연습용으로 쓰다가 디데이를 앞두고 종이꽃을 단 진짜 샷갓을 받아왔을 때의 들뜬 목소리란. 그간 얼마나 운동장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는지, 화면을 통해서도 피부가 새까맣게 그을린 것을 알 수 있었다.

올해 내내 정상 등교를 감행한 일본의 초중고

팬데믹의 초기였던 작년 늦겨울, 일본 정부에서는 전국의 초중고에 대해 일제(一齊) 휴교 요청을 내렸고 우리 아이의 학교가 속한 지자체는 3월 2일부터 휴교에 들어갔다. 한국처럼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기약 없이 등교를 연기하다가 6월 중순부터 순차적 분산 등교를 거쳐 7월이 되어서야 완전히 정상 등교 상태로 돌아갈 수 있었다. 세 달 조금 넘는 휴교 기간 동안 학령기 아이를 둔 가정은 그야말로 ‘비상사태’였다. 아이와 함께 집에서 꼼짝달싹 못하며 지내면서, 학교는 ‘국영수’와 같은 교과목을 학습하는 것 이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익히고 경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체육 활동, 친구들과의 인간관계, 소풍, 교외 학습, 독서 지도, 그리고 성장기 아이들의 발육에 맞춰 전문가가 영양소와 칼로리를 맞춰 짠 식단의 급식까지... 이 모든 것을 오롯이 가정에서 대신해야 하다니. 부모가 나름대로 관심을 기울인다지만 아이의 욕구가 제대로 채워질 리 만무했다. 아침에 깨워 한자와 연산 문제집을 풀게 하고 점심을 차려주며 저녁엔 또 뭐 먹지를 고민하다 보면 절로 한숨이 나왔다. 아휴, 너 제발 학교 좀 가라.

각 나라마다의 다양한 방식의 코로나 대응, 그리고 그 대응에 대해 다시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의견과 입장이 있음을 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상황의 현시점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기에 일단 선부른 비난이나 평가를 유보하고 싶다. 하지만 일하는 엄마 입장에서 일본 정부의 대처에 한 가지 고마운 것이 있다면, 일단 등교를 정상화한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는 공교육이 흔들림 없이 일상을 유지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공립학교에서는 부모의 판단하에 코로나 감염이 우려되어 학교를 보내지 않더라도 결석 처리를 하지 않고 ‘출석 정지’로 취급한다는 조건 하에서 주 5일, 때로는 주 6일까지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다름없이 학급 전체가 다 함께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정상 등교를 계속해오고 있다.

올 10월부터는 전국의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하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여 일상으로 돌아가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9월 초까지만 해도 일본의 상황은 심각해 보였다. 모두가 우려했던 대로 올림픽과 함께 코로나 감염이 급증하여 7월 29일 전국 확진자 수가 만 명대를 돌파했고 8월 13일에는 2만 명을 넘겼다. 그 시기에 교토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코로나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없었고, 사비 검사로 겨우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병상 부족으로 인해 호텔 방에 격리되어 생사를 넘는 경험을 해야 했다는 끔찍한 경험담을 듣기도 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도쿄에 ‘긴급사태선언’이나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규제가 내려지지 않았던 날을 세어보니 겨우 28일에 불과하다. 슈퍼마켓이나 홈센터와 같은 생활 편의 시설 외의 상업시설이나 음식점은 휴업하거나 영업시간을 저녁 8시까지로 단축해야 했고 올림픽과 같은 대형 이벤트 특수에서도 음식점에서의 주류 판매가 실질적으로 금지되어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대중교통 편수를 줄이고 막차 시간을 앞당기는 등, 한국보다도 빡빡한 규제를 취했던 상황 속에서도 작년과 같은 일제 휴교 요청은 없었다는 점은 놀랍다. 학부모들 사이에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유소년들 간에는 전염률이 높지 않다는 조사 결과와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환경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고려되었고, 장기 휴교 시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 문제, 그로 인한 아이들 간의 학습 격차 발생, 성장기 아이들의 심신 발달에 대한 악영향을 염려하는 의견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아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즐겁게 등교하고 있다. 한국에 돌아온 뒤 지인들로부터 자녀들이 학교에 못 가서 힘들다, 디지털 기기를 너무 많이 접해서 애들이 이상해지는 것 같다는 아우성을 들을 때마다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머쓱하기도 하다. 물론 그동안 나도 이웃 동네 보육원에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났다는 소식이나 병상 수가 부족해서 자택 대기 환자 수가 급증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에는 덜컥 겁이 났다. 내일부터 학교를 보내지 말고 집에 있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도 여러 번. 그러나 학교에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과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가는 것은 큰 차이다. 등교의 선택이 부모와 학생 본인의 결정일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없어서 못했든,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든, 디지털 학습에 의존하지 않고 매일 아침 가방을 등에 메고 물리적으로 걸어서 등교하는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병원 감염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훨씬 더 크다.

운동회에 ‘진심’인 일본인

휴교는 하지 않더라도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제한되었기에, 소풍과 교외학습, 수학여행 등은 대부분 취소되었다. 하지만 운동회만은 취소되지 않고 열렸다. 속한 지자체마다, 각 학교마다 진행 방식은 조금씩 달랐겠지만 적어도 올해 일본의 초등학교 중에 운동회가 열리지 않은 학교는 없는 것 같다. 하기가, 수많은 우려와 반대 속에서도 전 세계 선수단을 모아놓고 올림픽을 강행한 나라에서 고작 ‘소(小)’학교 운동회를 못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싶다.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경우, 작년에는 두 학년씩 나눠서 ‘스포츠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짧은 운동회를 치렀다. 평일 중에 수업 두 시간만을 할애해서 줄다리기와 80미터 달리기 두 가지 경기만 약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예년과 같은 규모로 돌아갔다. 단, 학부모를 비롯해 미리 등록만 하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었던 관람객 수에는 제한이 있었다. 한 아이 당 두 명의 보호자까지 자녀의 공연과 경기가 있는 순서에만 관람할 수 있게 그룹을 나눠 입장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어찌 됐든 그동안 소풍도 못 가고 견학도 못 가서 입이 나왔던 아이들은 신이 났다. 이렇게 운동회가 원상복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아이들에게 일상을 돌려주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이며 대책을 강구한 교육계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발로 뛴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었다.

원래 일본인들은 운동회에 ‘진심’이다. 초등학교 운동회에 멀리 사는 조부모까지 초대해서 3대가 함께 즐기는 게 보통이다. 학부모들은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 전날 밤부터 교문 앞에서 밤새워서 줄을 서기도 하는데, 경찰서에서 지도 조치가 내려왔으니 올해는 절대로 밤을 새우지 말고 당일 새벽 6시 30분 이후에 와 달라는 학교의 안내문을 받고 놀랐던 기억이 있다. 나는 운동회날 운동장 한쪽 구석에 돛자리 깔고 앉아 엄마가 싸온 치킨과 김밥을 먹었던 추억을 갖고 있는 세대인데도, 일본 학교의 운동회는 가히 가족의 연례행사를 방불케 하는 것이라 처음 경험했을 때에는 상당한 문화충격을 받았다. 체육관과 운동장 일부 지정된 구역에 발 디딜 틈 없이 돛자리가 깔린다. 관중석에서 자녀의 경기를 구경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각자 맡아뒀던 자리로 돌아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커다란 아이스박스 안에 차곡차곡 싸온 각종 먹을거리를 짹 펼쳐 놓고 먹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술만 빠졌을 뿐이지, 벚꽃 시즌 꽃놀이와 꼭 같은 광경이 학교 안에 펼쳐지는 것이다. 자녀가 참가하는 경기와 공연의 촬영에는 또 얼마나 열심인지, 일본의 캠코더와 카메라 제조 기술이 운동회 때문에 발전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운동회의 기원과 현재

알고 보면 운동회 자체가 일본의 독특한 문화다. 운동회의 시작은 메이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의 올림픽 첫 참가를 위해 애썼던 ‘일본 체육의 아버지’ 가노 지고로(嘉納治五郎, 1860-1938)는 “세계에 강한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도 지지 않아야 한다. 일본인의 신체가 외국에 비해 작고 약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좋아하는 소수의 아이들뿐 아니라 운동을 싫어하는 아이들까지도 신체와 정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운동회를 장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880년 중반부터 운동회는 전국의 학교로 보급되어 1888년이 되면 오키나와에서까지 일장기와 만국기를 매달고 메이지 천황이 내린 교육 칙어 봉독과 기미가요 제창으로 시작하는, 국가 행사로서의 색채를 띤 운동회가 개최되기에 이른다. 운동회는 메이지 정부의 부국강병 사명을 이어받아 훈련과 경쟁을 아이들의 신체에 부과했고, 운동하는 ‘나’의 신체가 우리 ‘반’의 신체이자, 우리 ‘학교’의 것이라는 것,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감각을 양성하는 행사가 되었다.¹⁾ 1895년 청일전쟁의 승리 이후 운동회의 연극적 성격은 강해졌고, 적(赤)과 백(白)의 양군으로 나뉘어 남학생들은 군인으로, 여학생들은 간호사로 분해 전쟁 연습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교정 위에 만국기가 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해서 청군 백군으로 나뉘어 하루 종일 경쟁했던 한국의 운동회도 일제의 잔재였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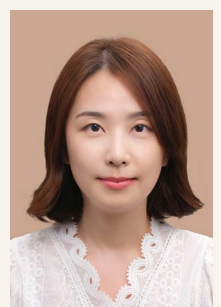
그런데 국민교육의 연장선 상에 있었던 국가 정책으로서의 운동회가 일본의 제2차대전 패전 뒤에도 사라지지 않은 것은 그것이 단순히 건장한 신체를 지닌 병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만을 갖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요시미 순야가 에도시대부터 전해져 온 아동들의 집단적인 놀이 전통이자 마을 축제로서의 성격도 또한 운동회의 뿌리 깊은 한 측면이라고 지적한 것과 같이,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적 요소와 다 같이 응원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오락적이고 카니발적인 요소가 없었더라면 애당초 전국 각급 학교의 보편적인 행사로 자리 잡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운동회는 시대에 뒤쳐지는 전체주의의 잔재다.”, “단체 연습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개성을 말살한다.”, “고난도의 단체 체조를 무리하게 연습하다가 다치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등의 비난이나 ‘운동회 불용론’ 등의 폐지 요구가 없지 않다. 그러한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운동회는 지속되고 있다. 오늘날의 운동회는 군사문화적인 요소를 걷어내고 아이들의 성장을 확인하고 하루를 온전히 즐기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지나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손잡고 달리기나 전원이 참가하는 계주 등으로 경기 내용을 바꾸고, 단체 체조나 기마전과 같은 부상이 우려되는 경기는 없애기도 한다. 장중의 분위기를 띄우는 음악은 행진곡풍의 군대음악이 아니라 아이들의 신나는 댄스음악이나 애니메이션 주제가로, 운동장 위에 내걸리는 만국기는 아이들이 각자 한 장씩 맡아 그린 작품으로 대체되었다.

유학하는 내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한 필자에게도 운동회는 매년 아이의 성장을 실감할 수 있었던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어린이집을 보내자 아직 돌이 되지 않은 만 나이 ‘0세 반’부터 운동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제대로 걸지 못해서 아빠 품에 안겨 나가 자기가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눈앞의 줄에 매달려 있는 바나나를 따던 아이가 다음 해에는 귀여운 의상을 입고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그다음 해에는 친구와 나란히 달리기 시합을 한다. 이제는 내가 저 아이보다 빨리 달릴 수 없을 것 같다. 부모로서는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내년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기대된다.

자기표현에 소극적인 일본인들이지만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는 데모까지 해가며 극렬히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개막 이후에는 호의적인 반응이 늘어났다. 개막 직전의 여론 조사에서는 “올림픽 개최에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반대보다 훨씬 적은 33%였고, “안전한 대회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은 고작 21%에 불과했다. 그러나 폐회 후의 여론 조사에서는 “개최해서 좋았다”라는 의견이 64%에 달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국에서도 이번 올림픽을 재미있게 보았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많은 것들이 제한된 코로나 시국 속에서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만들어낸 드라마를 보며 희열과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올림픽 경기 관람이 일시적으로나마 코로나 스트레스의 해방구 역할을 한 것은 아닐까? TV 화면을 통해 보는 시청자의 마음도 이랬는데, 하물며 운동회에서 직접 선수로 뛴 아이들은 어땠을까, 분명 제법 큰 해방감을 맛보았을 것이다. 정상 등교라고는 해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끼고 칸막이가 설치된 책상 앞에 앉아 가능한 친구들과의 신체적 접촉 없이 조용하게 지내야만 하는 비정상 속에서 그나마 운동회라는 이벤트를 통해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었다면, 제국주의 군사 문화의 소산이었던 것과 별개로 현시점에서 운동회의 존재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초중고 휴교를 했던 지자체와 하지 않았던 지자체 간 사이의 인구당 코로나 발생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²⁾ 이 결과대로라면 휴교를 하지 않고 정상 등교를 감행한 것이 옳았다는 결론이 나오니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더라도 정상 등교가 유지될 듯싶다. 그러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유소년 간의 감염률이 높기에 이 조사 결과만으로 학교의 휴교 여부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연구자의 조언이 따랐다. 대체 이 바이러스는 언제쯤 정복될 수 있을지, 우리는 과연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래저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에는 마스크 없이 뛰는 아이의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을 만큼 사정이 나아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 「昨年の一斉休校, 感染抑止効果はみられず 全国847自治体を分析」, 『朝日新聞』, 2021.11.1., <https://www.asahi.com/articles/ASPC162PVPBWULEI00F.html>



노유니아
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교수

“

〈관정일본리뷰〉는 일본이슈 및 한일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발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대일본연구소가 기획하고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

※ 필진의 글은 일본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